



日, 소주폐액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추출 九州공업대학등 연구팀 기술개발

구주공업대학 정보공학부 白井교수 및 前川제작소의 공동연구팀은 수소세균이나 광합성세균 등의 미생물이 질소 등의 영양이 없는 상태에서는 에너지원으로서 체내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일종을 저장하는 성질을 이용해 소주폐액으로부터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소주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주폐액을 생분해성에서 혐기처리하고 수소과 세포를 중심으로 한

유기물을 생성하고 그 유기산을 배양지로 해 수소세포 중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인 PHA를 축적시킨다.

유기물의 총농도는 1당 10g이상의 고농도가 되면 수소세포의 증식과 PHA축적이 장애가 되며 농도가 1당 5g인 경우에는 흡수율 30%이상에서 PHA를 축적, 비교적 저농도의 쪽이 효율적으로 PHA를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를 수행한 구주공대 및 前川제작소 연구팀에서는 유기체가 고농도에서도 천천히 조금씩 배양탱크에 공급됨으로써 탱크내를 PHA생산에 적합한 낮은 농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상의 플라스틱에 비해 5배에서 10배 이상으로 고가인 점이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다.

이와 같은 고가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연구에 참여했던 前川 제작소의 사장은 소주폐액 외에 말레이시아산 팜오일폐액을 원료로 이용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가격을 낮추는 연구는 병행할 예정이다.

소주폐액으로부터 초산 등의 유기물을 생성하고 수소세포의 작용에 의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이 연구는 현재 소주폐액을 바다에 버려 해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으며 OECD에 가입해 선진국에 버금가는 환경기준을 설정해야만 하는 한국으로서는 연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는 아직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으나 실용화되면 폐액처리 비용의 절감은 물론 고가인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등 경제적 효과도 크다.

캐나다, 플라스틱사출성형기 시장 한국산 95년 진출 이후 계속 확장

캐나다의 플라스틱사출성형기수요시장 규모는 95년기준 수입액이 C\$ 8,640만, 수출액이 C\$ 2억 6,990만으로 국내생산액을 약 C\$ 5억선으로 추정할 때, C\$ 3억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95년기준 캐나다의 플라스틱(자동차용 플라스틱 제부품 포함) 제조업체수는 총 1,200 개사로 기업합병 및 경영합리화에 따른 업체수

(캐나다의 플라스틱산업 현황) (단위: 개, C\$백만, 명)

구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업체수	1,369	1,276	1,223	1,221	1,200	1,200
생산액	7,137	6,681	6,873	7,613	8,829	9,500
수입	2,294	2,364	2,699	3,044	3,587	3,938
수출	1,270	1,269	1,540	1,892	2,475	2,962
종업원수	68,199	60,318	59,568	62,005	64,939	67,200

(자료: 캐나다 산업부)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수입동향) (단위: C\$천)

국별	1993	1994	1995	96.1~9
오스트리아	7,936	12,516	5,233	2,913
독일	12,920	4,260	8,611	6,099
홍콩	-	572	96	2,046
이탈리아	6,092	4,835	4,559	2,102
일본	14,724	22,018	18,471	14,425
한국	-	-	408	596
룩셈부르크	-	1,454	-	750
스웨덴	-	807	35	685
스위스	1,440	2,092	1,555	-
대만	291	831	1,670	535
미국	24,074	47,715	45,061	39,049
기타	763	1,015	740	633
총계	68,240	98,115	86,439	69,833

(자료: 캐나다 통계국)

* US\$ 1 = C\$ 1.3636(96년 12월)

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의 국내 총생산액은 지속 늘어나 95년 C\$ 95억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별로는 미국,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산 플라스틱사출성형기가 현지 수입시장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주로 소형사출기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대만, 홍콩에 이어 95년부터 한국산이 캐나다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캐나다는 플라스틱사출성형기의 수입시 유럽,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상에는 4.2%의 MFN관세를, GPN수혜대상국인 우리나라에는 1%의 수입관세를, 미국, 멕시코 등 NAFTA역내국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국내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의 사출성형기 구매시 주문생산능력이 뛰어나고, 주형 미 사출성형기를 동일패키지로 종합제작, 판매하는 Husky, Engel 등 국내 대형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술개발 속도가 빠른데다가 국내 생산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주형 역시 내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출성형기의 국내제작시 단가상의 큰 메리트가 없는데다 해외메이커가 특수디자인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플라스틱 사출성형업체인 엔드유저나 국내 사출성형기 제작업체가 해외메이커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캐나다의 플라스틱사출성형기 유통은 중간거래상을 최대한 배제한 제조원-최종사용자간(또는 제조원-국내메이커-최종사용자)의 단순구조하에 움직이고 있다.

플라스틱사출성형기의 판매가는 생산능력, 부착기능 및 사양에 따라 격차가 심한데 단수기능, 소형 사출성형기의 경우 C\$ 10만 미만선에서 첨단, 최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 첨단 대형사출성형기는 C\$ 100만선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 사출성형기의 국별 수입단가를 비교해보면 소량수출에 그치고 있는 스위스산이 대당 평균단가가 C\$ 38만 8천으로 가장 높은 반면 홍콩산이 C\$ 3만 2천선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산은 C\$ 20만 4천선으로 부가가치가 비교적 높은 중형 사출성형기 수입시장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 수입업체는 실지 사출성형기 사용업체인 플라스틱메이커와 해외메이커로부터 사출성

(95년 주요국별 수입평균단가비교) (단위:대, C\$천)

국 별	수 량	수 입 액	평 균 단 가
오스트리아	67	5,233	78.10
독 일	54	8,611	159.46
홍 콩	3	96	32.00
이탈리아	110	4,599	41.80
일 본	109	18,471	169.46
한 국	2	408	204.00
스 위 스	4	1,555	388.75
대 만	26	1,670	64.23
미 국	323	45,061	139.50
총 계	714	86,439	121.06

(자료 : 캐나다 통계국)

형기를 수입, 개조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체와 기존의 사출성형기 메이커로 양분되는데 플라스틱메이커의 경우 생산공정에 적합한 공급선 신규 발굴에 다소 관심을 보이는 반면 사출성형기 메이커들은 주로 중대형기기를 기술협력 관계에 있는 해외 유명업체(독일 Demag, 미국 Cincinnati Milacron사 등)로부터 수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산의 캐나다 수출은 아직 미미한 단계이나 부가가치가 높은 중대형기기 시장에서 선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기점으로 향후 소형사출성형기 시장으로의 진출도 기대되고 있다.

EU, 기업의 환경책임제도 추진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 업계 - 환경단체 로비 활발

기업이 유발한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하는 EU차원의 환경책임제도 마련을 둘러싸고 역내 기업 및 환경단체간은 물론 회원국간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EU 집행위는 의회의 관련 법률 제정요청에



따라 그간 엄격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기업에 대해 자신이 유발하는 환경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EU 차원의 환경피해 책임제도 마련에 역내업체와 독일, 프랑스, 영국의 거센 반발을 보임에 따라 집행위의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정체상태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최근 Bjerregaard 환경담당 집행위원은 환경피해 책임제도에 대한 3가지 대안을 제안했는데, 집행위가 향후 2주내에 이 3가지 대안을 검토, 집행위 초안을 확정할 방침임에 따라 역내업체와 환경단체간의 공방 및 대집행위 로비가 더욱 활발해진 것이다.

집행위 환경담당 부서에서 입안한 이 초안은 역내에서 영업중인 모든기업에 대해 엄격하고 조화된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당해기업이 유발한 환경피해를 배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 실행방안으로 다음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 1 : 인적 피해와 재산상의 피해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환경피해를 포괄하는 EU 차원의 책임제도

대안 2 : EU가 최소한의 배상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Council of Europe's Lugano Convention에 가입

대안 3 : EU차원의 책임제도를 마련하되 생태계에 대한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지침 제정

역내 업체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엄격하게 적용, 역내업체에 책임제도를 의무화하는 것은 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무거운 금융부담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Bjerregaard

집행위원이 제안한 세가지 대안은 물론이고 강제적인 책임제도 마련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이 이미 민법이나 공법을 통해 환경피해를 이유로 해 기업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EU 차원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역내 업체의 이러한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별 관련제도가 배상 책임자, 입증책임 등 주요 요건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EU 차원에서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집행위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세가지 대안중 가장 포괄적이며 효과 큰 첫번째 대안을 선호하고 있다.

EU 의회와 환경단체는 물론이고 역내 회원국중에서도 화란,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등이 집행위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세파프랑권 경제운영 순조
코트디부아르 혜택 입어**

94년 1월 12일부 프랑스와 IMF의 권유로 전격 50% 평가절하된 바 있는 서부아프리카 세파프랑권 경제운영이 최근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96년도 평균 경제성장률은 6%, 인플레이션 6%, 그리고 재정면에서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세파프랑화 평가절하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은 나라는 코트디부아르로 95년중 7%



경제성장, 96년중 39억 3천만달러 수출 등 경공업제품과 농산물의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

기를 100% 재생할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소재보다 개폐가 용이해 향후 관련업계의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 친화제품 식품포장 신소재 등장
伊, 이치멘社, 개폐 용이 · 재생도 가능

이탈리아 나폴리에 소재한 Icimen사가 기존의 식품포장 소재보다 알루미늄 함유가 적은 환경친화 신소재(Metallized plastic film)를 개발해 관련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소재는 이탈리아 국립 연구소(CNR : The Italian National Research Council)가 개발한 것으로 Icimen 사는 이 연구소의 회원사이자 신소재를 이용, 실제 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Icimen사는 스낵류(포테이토 칩, 땅콩류) 및 초콜릿 포장업체로서 기존의 소재를 대체, 보다 환경친화적인 소재인 금속성 플라스틱 필름으로 포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식품보존기간은 같은 대신 보다 얇은 플라스틱층으로 인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부분 식품회사들은 여러종류의 플라스틱 필름 또는 종이와 알루미늄이 혼합된 소재를 이용, 포장지로 쓰고 있는데 이는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고, 외관상 보기가 좋으며 포장지 프린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러종류 혼합소재의 단점은 바로 재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Icimen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수폴리프로필렌 및 금속성 플라스틱 필름을 이용한 단일 소재를 개발했는데 신소재는 쓰레

중국, 플라스틱원료 시장 침체 예상
4월 고비로 호조세로 돌아설 듯

올해 초 중국의 플라스틱 원료시장은 지난해 불황여파가 계속 이어져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연초의 시장상황이 가수요에 의한 구매보다는 현 수요량에 의해 결정되고 있어 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가격면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제품간의 가격 차이가 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PE류의 가격변동은 크지 않은데 비해 PP, PVC, ABS 및 PS 등의 경우는 가격하락세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PE류의 경우 박막용 수지가 판매호조를 보여 가격이 높은 반면 기타 품목은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PE의 가격을 보면 중국 北燕산 HDPE인 112A는 톤당 8,900원, 1F7B는 9,200원, 북연산 LDPE인 5000S는 7,900원, 그리고 박막용 PE는 8,200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PP의 경우 중국의 艾名, 廣州, 北燕 등에서 제품 생산을 늘리고 수입도 증가해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어 가격이 하락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산 F401의 경우 96년말 톤당 7,450원에서 현재는 7,300원으로 톤당 100여원이 하락됐다.



(중국 광주지역 주요 플라스틱 원료 가격변동 추이)

(단위: 元/)

품명	규격	96.12	97.1	증감
PE	고밀도 연산 112A	8,900	9,000	100
	연산 1F7B	9,200	9,100	-100
	저밀도 연산 5000S	7,900	8,000	100
	박막용	8,200	8,000	-200
PP	광주 F401	7,450	7,300	-150
ABS	대만 奇美 757	10,000	9,000	-1,000
PVC		7,050	6,850	-200
PS	연산 666D	6,800	6,400	-400

(자료 : 신소재잡지 1월 27일)

가격 변동폭이 가장 큰 ABS수지의 경우 대만산 奇美 757이 96년말에 비해 약 10% 하락했으며 PS또한 시장 공급물량이 많고 경쟁이 치열해 약 6% 하락했다.

97년도 광주시에서 거래되는 주요 플라스틱 원료가격은 아래와 같다.

플라스틱 원료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금부족 및 일부 제품의 중국 국내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작년도 중국의 플라스틱원료 총생산량은 95년대비 약 10%(50만톤)증가했으며, 96년 10월 까지 PP, ABS, PVC, HDPE 및 LDPE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18%, 24%, 62%, 44%와 13% 증가, 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당분간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년도 플라스틱원료 시장 수급상황을 살펴보면 국내 수요량이 약 7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내 생산량은 340만톤불과하며 재고량도 50만톤에 그쳐, 나머지 약 310만톤

은 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제품별 부족량은 LDPE, HDPE, PP, PS, ABS가 각각 30만톤, 95만톤, 75만톤, 60만톤, 40만톤에 이를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플라스틱 원료 시장이 매년 3~4월 전후로 주기적으로 호전돼왔으며 또한 상당제품의 경우 가격이 현재 비정상적으로 하락한 상황이어서 구정이후 2/4분기부터는 상황이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라크, 의약·의료용품 수입추진
2억1천만弗 규모 구입상담 진행중

Oil-for-Food 이행에 따라 이라크 정부는 식량 및 의약품 구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료품 구입을 위해 이미 여러 건의 계약을 완료, 현재 UN제재위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밀은 호주, 캐나다부터 수입 예정이며, 쌀은 태국, 베트남, 파키스탄 및 미국에서, 식용유는 요르단, 이집트, 말레이시아, 터카로부터 각각 수입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 스리랑카, 중국으로부터 홍차를 수입하고, 두류는 터키, 모로코, 수단, 중국으로부터 들여올 계획이다.

이라크가 이번에 식품류를 위해 배정한 금액은 총 8억500만달러이다.

한편 2억1천만달러 규모의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을 위한 상담도 진행 중이며, 최근 프랑스의 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작은 규모라는 것 이외에는 상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우리 업계에서도 이번 Oil-for-Food를 이용



한 의약품 관련 이라크시장 진출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내 한 업체에서 제약협회의 후원하에 오는 18~20일간 바그다드에서 한국 의약품 및 의료용품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인데, 우리 상품이 현지에 소개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은 이라크 보건부에서 수입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라크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보건성 관계당국(DGMI)에 샘플검사 등을 거쳐 공급업체로 등록돼야 만 가능하다.

이라크내의 현지사정은 Oil-for-Food가 이행되자 식량 등 물자 공급에 대한 기대로 부풀고 일부 식료품의 경우 정부가 싼 값에 채고분을 처분하는 등 분위기가 고조됐으나 UN의 승인 지연으로 물품조달이 늦어지자 생활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요르단 내의 이라크 비즈니스 분위기도 당초의 기대보다는 덜해 무역관을 찾는 바이어수도 많은 편은 아니다.

최근 이라크 비즈니스를 위해 무역관에 요청된 품목들은 직물 및 중고의류, 플라스틱 주방용품, 사출기, 중고 금형, 산업용 재봉기, 일부 가전품 및 PC 등이다.

폴란드, 韓國 산업투자 무분별 유치 EU 집행위 비난

EU 집행위는 27일 개최된 재무장관 회의용 자료에서 폴란드의 EU가입에는 상당한 문제가 뒤따르고 있어 장기간의 시정작업이 요구된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EU집행위는 폴란드 총리의 프랑스 공식 방문일정이 가까워지자 이번에는 폴란드가 EU 비회원국 특히 한국의 산업투자를 무분별하게 유치함으로써 EU기업에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시켰다고 비난했다.

Cimoszewicz 총리는 EU집행위가 제기한 이 문제에 대해 폴란드가 EU 기업에 손해를 입히면서 한국 대우자동차의 산업투자에 특전을 베풀어 주었을 것이라는 집행위의 의혹 및 비난에 대해 아무런 특전도 베풀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폴란드 외국인 투자청(PAIZ)에 따르면, 폴란드의 외국인 투자규모는 자유경제체제 도입 이후 120억달러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100만달러 미만의 외국인 투자를 포함할 경우 14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의 외국인 투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투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96년에 만 무려 50억달러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EU, 유전자 변형식품 라벨링 의무화 의회승인으로 채택 확실히

EU의회가 지난 수개월간 이사회와 논란을 벌여온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한 라벨링제도를 승인함에 따라 향후 EU내에서 유전자 변형식품을 판매할 경우 라벨링이 의무화된다.

EU의회는 지난 16일 환경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조작 및 기타 신개량식품 마케팅 및 라벨링제도 도입규정'을 승인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토마토, 감자, 딸기 등과



같이 땅이나 물에 심으면 자라는 살아있는 유전자 변형제품을 역내판매할 경우 제조업자는 유전자 변형제품임을 반드시 라벨링해야 하며, 유전자 변형요소가 가미된 가공식품도 라벨링돼야 한다.

이들 라벨링 대상식품은 역내판매 이전에 집행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집행위는 엄격한 보건 및 안전검사를 거친 후 판매허가를 내주게 된다.

그러나 유전자 변형요소를 함유한 식품이라도 일반식품과 화학적으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등한 식품은 라벨링을 할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식품은 생산자가 집행위에 통보만 하면 역내판매가 가능하다.

라벨링 문구 및 포함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제조업자에게 완전히 맡겨졌다. 한편 이 규정은 역외로 수출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회와 이사회간이 타협안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규정은 비록 제조업자에 대한 라벨링을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당초 제안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와 유전공학업계에서는 환영의사를, 환경론들은 반대여사를 표명하고 있다.

이집트, 신문용지 수입 폭증
정부가 80% 구입, 구매입찰 활용길요

지난 90년 이후 5년간 연평균 10%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던 이집트 신문인쇄용지시장이 95년들어서는 국민들의 점증적인 의식수준

고양과 함께 알고자 하는 욕구가 분출하면서 신문 등 각종간행물 부수를 대폭적으로 증판함에 따라 수요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이집트에는 5종에 이르는 일간지, 주간 및 월간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볼때 총 28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이 연간 수요하는 물량은 12만~15만톤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집트는 전국토의 96%가 사막인 만큼 삼림지역이 없을 뿐 아니라 펄프공장 등도 전무해 신문인쇄 용지의 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Edfu시에 펄프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관행으로 볼때 이러한 연구결과가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시장참여 본격화

95년말 현재 이집트 통계청에 의해 공식 집계된 신문인쇄용지의 수입규모는 4,900만달러로 아직 많지는 않은 규모이지만 전년대비 무려 63%의 경이적인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인구 6천만의 잠재수요를 감안해 볼때 이러한 두자리수의 수입증가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국별 시장진출현황을 보면 과거 93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독일,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이 주종 공급국이었으나 최근에는 기존진출국 외에 스위스와 중국에서 신규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주요 공급국들의 평균 시장점유 현황을 보면 캐나다가 40.7%로 최대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가 26%로 시장을 확대하



고 있는 추세이며 이외에 미국이 18.4%를 점유해 이들 3개국이 이집트 신문인쇄용지 시장의 총 88%가량을 차지, 실질적인 시장지배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집트는 신문인쇄용지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아랍국으로 수입물량의 일부인 100만달러 상당을 수출하고 있다.

자체생산이 전무한 관계로 수입상 아무런 규제나 제한이 없으며 단지 총 수요량의 70~80%는 정부차원에서 대부분 구매입찰을 통해 직접 수입하고 있고, 나머지 20~30%만이 민간수입상의 L/C 오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관세는 5%로 아주 저렴하게 부과되고 있다.

신문인쇄용지 수입의 70~80%를 맡고 있는 정부차원의 주 수입원은 정보부이다. 각 언론사들이 아직은 대부분 국영으로 정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수입조달하고 있다.

정부사이드나 국영기업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5만달러 이상은 입찰을 통해 구입하도록 법으로 규제화돼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 신문인쇄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입찰에 참여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정보부 구매입찰은 1년에 2회정도 있으며, 물량은 연간 10만 t에 이르는데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응찰자(공급업체)의 자격은 최소한 연간 생산능력이 56만 t이상인 업체만 응찰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도 학교교과서나 값싼 잡지 및 각종 인보이스용지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연간 수입상들이 직접 L/C베이스를 통해 수입을 하고 있

(주요 국별 수입실적)

(단위: US\$천, %)

국별	1994	1995	점유율
캐나다	9,258	23,020	40.7
러시아	4,110	18,242	28.2
미 국	9,266	5,303	18.4
스위스	-	1,199	1.5
독 일	1,696	234	2.4
오스트리아	1,328	-	1.7
중 국	-	419	0.5
총 계	30,429	48,806	100.0

(자료 : 이집트 통계청)

는데 연간 물량은 2만~4만 t상당이다.

현재 이집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문용지는 질이 좋지 않은데 이는 현지생산이 안되고 전량을 수입해야 되고, 특히 신문용지제품의 특성상 국제적인 시황에 따라 가격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정보부를 통한 입찰구매든 민간수입상에 의한 직접구매든 주 구매의사 결정 요소는 품질보다는 가격이 관건이 되고 있다.

한국산 최고 품질 인정

신문용지 규격은 정보부를 통한 구매의 경우 45g/m²과 48g/m²이 각기 반반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릴의 폭은 76cm와 168cm, 외부 직경은 125cm규격이 의무적 준수사항이 되고 있으나 민간수입상에 의한 수입은 특별한 의무사항이 없다.

바이어들과의 방문 및 전화접촉을 통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신문인쇄용지 가격은 국제적인 시황에 영향을 많이 받기때문에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집트에 공급하고 있는 주 공급국들로부터의 상대적인 수입가를 비교해 보면 미국·캐나다·핀란드제품이



최고의 품질과 함께 가격도 제일 비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92년까지만 하더라도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집트 시장의 75%가량을 공급했으나 93년부터는 러시아산 값싼 제품이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저가의 가격으로 많은 물량이 도입되고 있으며 중국도 최근최저가를 무기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어 바이어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산은 인지도면에서는 여타 선진국산에 다소뒤지지만 품질은 최고로 인정을 받고 있으면 다만 가격이 비싼 관계로 바이어들로부터 호응도가 다소 떨어지고 있다.

이집트의 신문인쇄용지시장은 매우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있다. 시장개발과 함께 국민들의 출판물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산여건은 아직 뚜렷한 개선의 여지가 없어 향후 수입수요는 점증할 것으로 보인다.

진출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에이전트선정을 통한 구매입찰 참여가 필수적이며 전량을 수입

해야 하는 관계로 용지의 질보다는 가격을 우선 시하는 현지여건으로 인해 유럽산대비 15~20%의 가격경쟁력은 확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향후 민간수입상들의 구매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 현재 민간수입상들의 소량주문에도 적극 응함으로써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간수입시장을 잠식해가는 전략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印尼·태국産 포장백
EU 反덤핑 잠정관세 부과

EU 집행위는 최근 집행위 규정 45/97(관보 L12)을 통해 인도·인도네시아·태국산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제 포장용 가방에 대해 16일부터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잠정관세율이 국별, 업체별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고율이어서 해당기업의 대 EU수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상대적으로 우리 업계의 경우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잠정관세 대상품목 및 관세율은 다음과 같다.

○ 대상품목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또는 중량 120g/m² 이하의 이와 유사한 직물로 만들어진 포장용 방직용 섬유제 가방(CN 6305.3281, 6305.3391)

○ 국별·업체별 잠정관세 내역

- 인도 : Buildmet Private Ltd. (26.8%), Gilt Pac(3.2%), Kan-put Plasti-pack(10.9%), Polyspin(22.0%), Shankar

(품질 및 가격경쟁력 비교) (단위: US\$)

원산지	가격 (C&F)	품질 수준
미국	570	고급
캐나다	600	"
핀란드	600	"
러시아	470	중급
스페인	550	고급
한국	600	"
중국	450	저급

(주 : 수입상 전화접촉 및 방문실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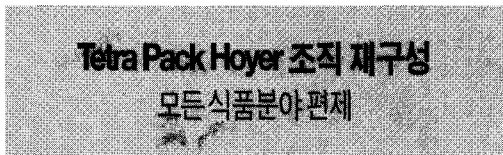
Packaging(20.4%), 기타(47.2%)

- 인도네시아 : Adhi Kara Suryatama(28.3%), Aster Gharma(28.3%), Hardo Soloplast(28.4%), Kemilau Indah Permana Ltd.(31.0%), Pelasnal(28.3%), Po-liplas Indah Sejahtera(38.0%), Simonplas(23.5%), Wirapetro(28.3%), 기타(74.3%)

- 태 국 : Bangok Polysack(13.8%), CP Poly-Industry Pub-lic Co.(63.9%), Laemthong Industry(83.4%), Thai Coating Industrial Public(29.1%), Thai Plastic Products Co.(15.8%), 기타(94.9%)

○ 부과일 : 97년 1월 16일

집행위는 역내산업을 대표한 EATP-(European Association for Textile - Polyolefins)의 제소에 따라 95년 4월 13일 이들 국가산 가방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EU 시장의 약 44%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인도네시아·태국산에 대해 집행위가 고율의 잠정관세를 부과기로 결정함으로써 우리 업체로서는 경쟁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 기진출했던 진출을 모색 중인 업체의 경우 조사추이 및 결과에 대한 주의가 요망된다.



Tetra Laval 그룹은 최근 조직을 재구성했다.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그룹내의 모든 식품분

야를 Tetra Packk 조직내에 편제되어 있었다.

이번 재구성의 결과는 'Tetra Laval Food Hoyer'가 1996년 8월 1일부로 Tetra Pack Hoyer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리고 회사로고도 바꾸었다.

"Tetra Pack Hoyer은 계속해서 아이스크림 상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Tetra Pack 조직과의 강한 유대로, 더 나아가서 고객들을 위해 새로운 기구와 포장방식을 발전시키는데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하고 Tetra Pack 관계자는 말했다.

KRAFT Food de Mexico사는 Manchego 스타일의 슬라이드 치즈에 전채적인 새로운 포장제품 발매를 결정했을 때 올해 신문의 표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Jorge Saucedo Varela라는 Manchego 포장기술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새로운 제품에 따른 연출을 원했기에 미국스타일의 슬라이스 치즈에 쓰여지는 연포장대신 Manchego스타일의 슬라이스 치즈를 위해 열성형의 포장을 선택했다."

블리스터는 열성형 장치로 10~20장 정도가 포장돼 생산되고 있다.

Barex에 의해 선택된 포장재료는 미국 Mirrex사에서 만든 Mirran포장이었다. 열성형을 위해 결정된 이 포장은 Barex사 수치로 만들어진다. [K]

